

한일기본조약을 ‘지저귀다’

—트위터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담론규범의 변화

이광호 _ 게이오대학 문학부

목 차

- I. 문제의식
- II. 일본의 인터넷공간 속의 ‘한국’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2008년 이후 일본에서도 주요 정보인프라의 하나로 성장해 온 트위터(Twitter)상에서,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투고가 어떠한 이용자들이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일본사회 내에서는 익명성이 높은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른바 ‘혐한담론’이 지속적으로 생산, 유통되어 왔는데, 트위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덜 익명적일 수 있는 미디어에서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떠한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담론의 전개가 보수정권의 회귀라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 자민당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얻기 시작한 2012년부터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투고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점, 거의 대부분의 투고가 자민당정권이 나 우익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혐한’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투고자의 대부분이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을 국가주의나 우익으로 표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일본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규범의 변화를 시사하는 현상임과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I . 문제의식

한국과 일본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한 지 올해로 50년째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감정의 차원에서도 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¹⁾ 특히 2012년 아베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면서, 그 동안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듯 보였던 일본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지금까지는 좀처럼 표면화되지 않았던 협한운동단체의 주장이나 활동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또 활성화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이나 불쾌감의 표명을 주저하던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인식에 입각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표명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양국정부의 행위나 언론보도 못지않게, 다양한 매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담론이, 그리고 그러한 담론이 조성해내는 사회심리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상처 헤집는 日, 유연성 없는 韓…한일관계 3.85점」, 『동아일보』 2015년 2월 28일자.

대면적인 대화에서부터 언론보도에 의한 매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공간에서 이러한 담론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인터넷상의 트위터(Twitter)라는 미디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8년 일본어 사용자환경을 제공하면서부터 일본인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트위터는 일본 내에서도 뉴스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입수하고 퍼뜨리는 주요 정보인프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 또한 트위터는 그 자체의 공간에만 닫혀있지 않고, 인터넷상의 다른 미디어나 매스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해 그 안팎으로 광범위하게 정보나 의견을 유입시키고 확산시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트위터는 그 자체만의 이용자 규모나 내부적인 설계가 가능케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미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상에서 ‘한국’에 대해 어떠한 정보나 의견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트위터상에는 한일기본조약에 관

2) 李光鎬, 「ツイッター(Twitter)上におけるニュースをめぐ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 成城大学社会イノベーション学部, 『社会イノベーション研究』 第9巻 第1号(2014), 1-16쪽; 李光鎬, 「ツイッター上におけるニュースの普及-誰がどのようなニュースをリツイートするのか」, 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65(2015), 63-75쪽.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트위터상에서의 뉴스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확산행위가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일정한 경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해 어떠한 내용의 트윗이 투고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누가 그러한 트윗을 하고 있는가이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의 관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일본의 인터넷공간 속의 ‘한국’

트위터를 비롯한 일본의 인터넷미디어에서 한국 또는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떠한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하세가와 노리코(長谷川典子)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소나타’를 토끼으로 하는 일본어 게시판³⁾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438명⁴⁾의 투고자가 올린 2,671건의 투고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고 요약하고 있다.⁵⁾ 당시 익명제로 운영되고 있던 이 게시판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빈번히 사과하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인터넷상의 타자를 예의범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타인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친근한 상대로 여기는 듯한 커뮤니케이션이 실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투고의 내용에서는 한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속하는 타자가 아니라 같은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중요한 정보 제공자로서 소중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게시판의 참가자들은 드라마의 배경이 된 한국문화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점에

3) 분석의 대상이 된 게시판은 Yahoo! Japan의 해외드라마 게시판이었다.

4) 이 가운데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투고자도 12명 포함되어 있었다.

5) 長谷川典子, 「インターネット掲示板のエスノグラフィー: 日韓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に向けて」, 『多文化関係学』第1卷(2004), 15-29쪽.

서 한국 드라마의 방영이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세가와는 적고 있다.

그러나 하세가와가 관찰한 이러한 사례는 아마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외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듯이, 일본의 인터넷상에는 ‘혐한’(嫌韓)담론이 넘쳐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익명성이 높은 ‘2ch’ 등의 전자게시판에서 그러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한영균⁶⁾은 그 내용을, 한일관련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비판, 한국 국적 예능인이나 스포츠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 일본 내 재일코리안에 대한 멸시, 한국미디어의 번역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한 반론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류’ 붐이 일어난 뒤부터는 한류에 대한 비판, 한류 붐을 전하는 일본미디어에 대한 비판도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다나베 류(田辺龍)는, 2ch에 혐한, 혐중 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뉴스속보’라는 게시판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지 2ch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⁷⁾, 그리고 전반적으로 친좌익적인 투고가 적기는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⁸⁾

다나베가 혐한, 혐중투고가 많다고 지적한 뉴스속보게시판과 같은 계열의 ‘뉴스속보+’라는 게시판에서 이용자들 간에 어떠한 뉴스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오야마다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6) 韓英均, 「反韓と反日—嫌韓流からみえてくるもの—」, 早稲田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所, 『社会学研論集』 16(2010), 132~147쪽.

7) 2ch에는 약 40개의 카테고리에 걸쳐 780여 개의 게시판이 존재하며, 게시판마다 적게는 50개 정도에서 많게는 1,000을 넘는 토픽이 설정되어 투고가 이루어진다. 小山田晋, 「ニュースをめぐるオンライン上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ニュース・バリューに関する分析」, 慶應義塾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所修士論文(2014), 2쪽.

8) 田辺龍, 「匿名掲示板」と世論形成の磁場,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8(2006), 42~53쪽.

부합하는 뉴스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주로 선택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것은 대항적 해석의 가능성, 스테레오타입과의 일치, 엘리트/셀레브리티의 하자(瑕疵), 사회적 책임의 불이행, 논의가능성, 타자의 부정한 수익, 능력/리터러시의 결여인데⁹⁾, 한국이나 중국, 또는 재일코리안에 관한 뉴스보도가 이러한 기준, 특히 ‘스테레오타입과의 일치’, ‘타자의 부정한 수익’과 같은 기준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고, 진보성향의 언론기관에 의한 한국 및 중국보도가 ‘대항적 해석의 가능성’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어, 험한담론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익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투고가 많아 ‘네토우요’(인터넷 우익의 줄임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러한 네티즌들의 담론에 대해 기타다 아키히로¹⁰⁾는 보수주의라는 호칭을 부여하기에는 너무나도 졸렬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해져 있는 기묘한 행위라고 갈파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인 신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좌익적인 언론기관이나 중국, 한국 등과 같은 2ch이용자들의 ‘공동의 적’을 두들겨 연대감을 유지하려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스즈키 겐스케(鈴木謙介)¹¹⁾는 이러한 게시판상에서 전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애깃거리 커뮤니케이션(ネタ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진지하게 표명하고 교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애깃거리’로서, 여럿이 모여 ‘웃고’, ‘즐기고’, ‘떠들기’ 위해 쏟아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에서 관찰되는 험한담론들이 그들의 확고한 정치적, 사상적 신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지탱

9) 小山田晋(2014), 25쪽.

10) 北田暁大, 『嗤う日本のナショナルリズム』, NHK出版, 2005.

11) 鈴木謙介, 『暴走する日本のインターネット』, イースト・プレス, 2002.

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즐기기 위한 작은 ‘말장난의 축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기타다가 기대하는 깊은 교양으로 뒷받침된 고상한 ‘논객’수준의 보수주의나 우익사상은 아닐지 몰라도, 나 이브하고 감각적인,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서 내뿜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으며, 옷자고 하는 애깃거리이기에 오히려 더 빈번히 열람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저항 없이 내면화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기본조약’을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2ch과 같은 게시판보다 더 ‘양성화되고’ ‘열려 있는’, 그래서 사회심리적으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라는 미디어공간에서, ‘누가’ ‘어떻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분석결과를 전반적인 일본사회의 담론규범의 변화와 관련 지워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한일기본조약에 관해 일본의 트위터 상에서는¹²⁾ 어떠한 내용이 투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이라는 키워드¹³⁾로 기간을 한정해 검색을 실시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일인 6월 22일을 전후해 이와 관련한 트윗이 많이 투고될 것으로 예상해, 6월 22일을 중심으로 1주일간,

12) 물론 트위터라는 미디어공간의 특정 부분에 국적이나 국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본어로 작성된 트윗에서는’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로 작성된 트윗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본인이 투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의 트위터’라든지, ‘일본인들의 투고’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 실제로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는 일본어 ‘日韓基本條約’이다.

즉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투고된 트윗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했다. 최근의 추이,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기와 아베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이후의 2013, 2014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을 대상으로 삼았다.¹⁴⁾

어떤 이용자들이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을 투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년별로 약 20% 정도의 이용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직접 그들의 프로필과 타임라인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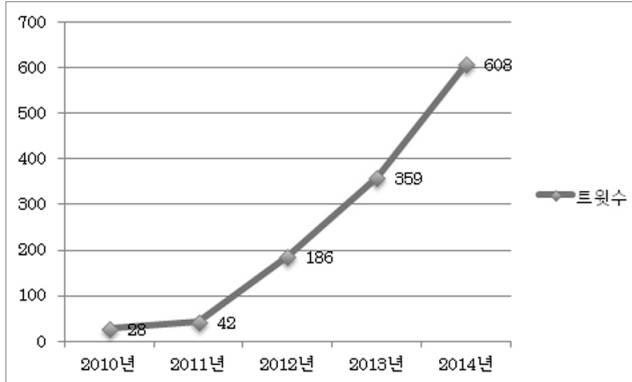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한일기본조약 관련 트윗의 추이: 2010년~2014년

먼저 분석대상으로 삼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일기본조약’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보자. <그림 1>은 그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일기본조약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트윗은 2010년 28건, 2011년 42건으로 매우 적은 투고량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86건, 359건, 608건 등 해마다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09년에는 3건, 2008년에는 0건이었다.

14) 트위터의 검색에서는 투고날짜는 지정할 수 있으나 시각까지는 지정할 수 없었다. 또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트위터는 트윗이 투고된 시각을 국제표준시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때문에 검색대상으로 설정한 기간과 검색결과로 얻어진 투고가 투고된 기간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분석결과에 중대한 오차가 포함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림 1〉 ‘한일기본조약’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 수의 추이
(각 연도 6월 19일~6월 25일의 1주일간)



이러한 증가추세의 원인으로 몇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트위터 이용자 수의 증가이다. 트위터의 사용자화면이 일본어화된 2008년 4월 이후 일본의 트위터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단순히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도 그에 따라 늘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일본사회 내의 관심의 고조이다. 조약 체결 및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의 이슈화 및 아베정권의 우경화 행보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져왔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담론규범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뒤에 상술하듯이 트위터상에 투고되고 있는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일본어트윗은 압도적으로 일본정부의 입장이나 이른바 우익단체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해 이해를 표하는 내용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양국의 국익이라는 틀을 벗어난 인도주의적 입장이나 중도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트윗마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트윗이 최근 3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입장에서 발언하기 쉬운 담론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에 한 원인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전부터, 아니 실질적으로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에 대한 민주당정권의 대응이 파탄을 기하면서부터, 민주당정권의 거버넌스는 와해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자민당의 여론장악력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아베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금기’시 되어 왔던 주장들이나 사회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발언들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2ch과 같이 익명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게시판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트위터와 같은 공간에서도 편협한 국가주의적 발언들이 거침없이 투고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의 이용자 계정이 투고하는 평균 트윗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0년의 경우, 28건의 트윗은 28개의 이용자 계정에 의해 투고된 것이었다. 2011년의 42건의 트윗은 36개의 이용자 계정에 의해 투고되어, 이용자 계정당 평균 트윗수는 1.17을 기록했다. 2012년은 146개의 계정에서 186건이 투고되어 평균 1.27건, 2013년은 216개의 계정에서 359건이 투고되어 평균 1.66건, 그리고 2014년은 380개의 계정에서 608건이 투고되어 평균 1.6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많은 양의 트윗을 거듭해서 투고하는 이용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2010년에는 모든

이용자가 한 건씩의 트윗을 투고했고, 2011년의 경우도 가장 많이 투고한 이용자가 3건에 불과했는데, 2012년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1주일 동안 한 일기본조약에 대해서만 18건의 트윗을 투고한 이용자가 있었다. 2013년에는 마찬가지로 14건, 16건, 심지어 44건을 투고한 이용자도 있었으며, 2014년의 경우 4명의 이용자가 1주일 동안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각각 12, 18, 20, 21건의 트윗을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2012년에 접어들면서,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동일 이용자가 복수의 투고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집중적으로 특정 내용의 트윗을 반복해서 투고하고 있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트윗의 내용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분석대상기간 중 한일기본조약에 관해 투고된 트윗은 일본정부의 입장이나 우익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12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트윗의 수도 적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 들어서면서 트윗의 양이 급증함과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보수적인 가치관이나 국가주의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2년 이후의 이러한 트윗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하위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그 수가 많았던 순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한국
- 2) 성의를 다한 일본, '보채는' 한국
- 3) 국민을 기만한 한국정부

물론 위의 이러한 주장 또는 인식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다만 하나의 트윗에서 어떠한 점(또는 점들)을 표면화시키고 있는냐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위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분류에 해당하는 투고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본의 트위터상에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어떠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한국

많은 트윗에서 이러한 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다른 뉘앙스의 주장으로 나뉘고 있었는데, '일본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탄소리를 하느냐는 식의 한국의 '말바꾸기', '태도 번복'에 대해 그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는 트윗과, 조약의 비준이라고 하는 근대국가로서의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능력적 결함'을 조롱하는 트윗, 그리고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의사록 공개를 문제 삼아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품성적 결함'을 지탄하는 투고들이 있었다.

“오늘은 일한조약이 체결된 날이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금의 오카와리(추가)를 요구해오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밀줄 필자. 이하 동일)과 대등한 우호관계는 무리로나 하고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후략)”(2012년 6월22일)

“(전략)…즉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 일본은 더이상 사죄배상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데 오늘까지도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위반인데”(2013년 6월 21일)

“오늘은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일한 기본조약의 조문을 잘 읽고 양국의 과거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점을 새삼 배워주십시오. 국제조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나 국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선진국의 민도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2012년 6월 22일)

“조약을 비준하는 것의 중대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일한단교(日韓斷交)는 결코 감정론이 아니다. 그런 나라와 건전한 외교관계 같은 걸 맺을 수 있을리가 없다”(2013년 6월 23일, 2014년 6월 19·21·24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약속위반’, ‘국제조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조약비준의 중대함을 이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표현에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많은 트윗에서 한국은 도덕적이거나 능력적인 결함에 의해 ‘약속을 어긴 나라’라고 규정되고 있었다.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작업과 그 결과의 발표에 대해 ‘약속위반’이라고 반발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의 의사록 공개를 문제삼아, 약속을 어긴 건 한국정부가 먼저이고 더 자주 그래왔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는 트윗들도 있었다.

“일한기본조약, 고노회담(담화의 오류로 판단·필자), 일한공동개발월드컵, 총탄공여, 한국은 일본을 몇 번이고 속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한교섭은 ‘전부 공개한다’는 전제에서 교섭해야 할 것이다”(2014년 6월 23일)

“일한기본조약의 의사록을, 먼저 밖에 내놓은 것은, 원래 너희들...
한국인, 한국정부... 서로 내놓지 않기로 정한 걸 먼저 어긴 건 한국인
너희들이잖아? 잊었냐?...”(2014년 6월 24일)

2) 성의를 다한 일본, ‘보체는’ 한국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트윗들도 상당수 투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트윗들은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거대한 금액이었는가를,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거나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 규모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경제협력금의 액수를 한국의 국가예산과 비교시킴으로써 한국이 ‘작고 가난했던 나라’라는 기억을 상기시켜 원조자로서의 일본의 우월함을 부각시키고 그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표상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 있어서 원칙대로라면 한국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 불, 민간차관 3억 불을 지불했다. 다 합쳐서 8억 불이다.”(2014년 6월 24일)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서 일본은,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의 2.3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2014년 6월24일)

또한, 조약체결당시 일본은 한국에 투자한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설비와 일본인소유의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트윗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조약체결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번번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하며, 성의를 다한 일본, 계속되는 요구에 ‘인내하는’ 일본을 표상하고 있는 투고들이 있

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한국의 '중속적 지위'를 영속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상의 책임을 추궁하며 '돈'을 '쏟아내려'하는 '배은망덕'하고 불순한 의도를 지닌 한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65년에 일한기보조약을 맺어 무상 1080억 불, 보상 8억 불+α를 지불하다. 그 후에도 특별경제협력금 40억 불, 통화위기구자금 100억 불, 원고구제기금 200억 불, 리만쇼크 300억 불, 월드컵 300억 엔(미변제) 등 지원을 해왔습니다.”(2014년 6월23일)

“auto tweet 한국에의 원조금 1965년 60조 엔 상당의 인프라정비비 양도, 1965년 800억 엔+α를 원조 일한기본조약, 1983년 특별경제협력 400억엔 지원”(2014년 6월 23일)

“일본은 이만큼의 협세를 한국에 쏟아부었습니다만, 한국은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아직까지 일본에 이유 없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한기본조약 개정이라던가 위안부배상을 말하려면 일단 전액 금리불여서 돌려줘”(2014년6월24일)

직전에 인용한 트윗의 마지막부분에 들어 있는 것처럼, 한일기본조약을 지키지 않고 무효화시키려면 경제협력금을 돌려내라는 식의 주장도 더러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제기나 주장을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재'수단이 일본 측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트윗에는 야유와 조롱의 뉘앙스를 담은 ‘お力ネ’(돈이라

는 말의 직설적이고 약간 천박한 뉴앙스를 강조한 표기), 'たかる'(얻어먹으려 몰려든다는 말), 'お代わり'(음식을 한 그릇 먹고 난 뒤, 같은 음식의 두 그릇째 이후를 뜻하는 말)같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한국 측의 역사문제나 배상문제의 제기가 결국엔 '돈'을 뜯어내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요구가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일한기본조약 때 큰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전쟁을 의제로 삼으면 일본은 돈을 내놓는다는 게 거기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국적으로 전쟁이 의제가 되도록 반일을 부추깁니다. 일본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2013년 6월 19일)

3) 국민을 기만한 한국정부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의 일정부분은 개인배상과 관련된 문제의 책임이 조약 체결 당시의 박정희정권, 그리고 그 이후의 한국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일본은 개인배상을 제안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경제협력금의 방식을 요구했으며, 경제협력금에는 위안부피해자나 징용노동자에 대한 개인배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모두 다른 곳에 사용했으니, 위안부피해자나 징용노동자가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대는 일본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한국정부라는 주장이 그 골자다.

“일한기본조약에서 지불한 돈 가운데는, 개인의 군포나 예금의 실효분은 물론, 북조선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되어 있다. 전부 훔친 것은 한국정부. 그걸 알면서도 바보같은 한국최고재판소가 뒤집어엮었다.”(2014년 6월 23일)

“한국인이 모르는 진실: ‘한강의 기적’이란 일한기본조약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경제협력금’(배상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한국 측이 일본에게 인프라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4조 5천억 엔 및 기술협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2013년 6월 20일)

요약하자면, 한일 간의 배상문제는 한국정부에 ‘거액’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대신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기본조약이라는 ‘약속’을 맺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배상을 종용한다, ‘돈’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또는 한국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국사람들은 그 약속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배상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한국정부에 있다…는 것이 한일기본조약에 관해 일본의 트위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완강해지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 한국사회에 조약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는 점, 그것을 군사정권이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조약체결을 강행했다는 점, 위안부피해자에 관한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이슈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도발에 대한 사죄와 배상책임은 조약체결에 의한 테크니컬한 타협의 범위를 넘어서, 인류의 영역에서는 무제한의 추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피력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투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의 트윗들이 트위터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 보였다. 일부의 트윗은 수십 차례 리트윗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트윗은 거의 리트윗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리트윗이라는 기능을 사용

하지 않아도 투고자의 트윗을 확산시킬 수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집계된 수치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트윗은 투고자와 팔로워 사이의 닫힌 네트워크에서 종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투고자들의 특성

위와 같은 내용의 트윗을 투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렵다. 트위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어 트윗을 투고하고 있는 이용자 계정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연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프로필의 사진으로 인간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실명 사람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고 인간의 얼굴사진을 내걸고 있다 해도, 트위터의 서비스제공회사가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실제로 그 이용자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트위터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기서는 투고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아니라, 트위터상의 프로필정보나 트위터 이용행동과 관련된 몇가지 통계치, 그리고 타임라인에 투고된 트윗의 내용 등을 통해 드러나고 유추되는 '트위터상에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⁵⁾

15)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나, 본고에서 참조한 프로필의 내용은 2015년 4월 27일에서 29일에 걸쳐 확인된 것들로, 그 이전과 이후에는 다른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1)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을 투고하고 있는 트위터이용자들의 특징도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윗의 내용이 2012년을 경계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고자들의 특징에 있어서도 2012년을 전후해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2010년과 2011년에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을 투고하고 있었던 이용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약 20%의 이용자를 추출해 그들이 게재하고 있는 프로필과 투고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개인적인 취미나 일상적인 속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타임라인에 투고되고 있는 트윗의 내용 또한 그러한 취미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2010년과 2011년에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을 투고한 이용자들의 프로필을 몇 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양이 세 마리, 남편 한 마리, 딸 한 마리와 동거 중. 미국드라마 좋아함. 망상을 하면서 노는 것에 ‘느끼고’ 있습니다. 모 수퍼마켓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힘들어도(눈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

“FC토쿄SOCIO. 예전엔 요쿠하마후류겔스(J리그의 축구팀)였는데 àFC토쿄로 개종. 지금은 파랑빨강(FC토쿄의 유니폼컬러)외길. J리그 봄가을리그분할 2스태이지제도 반대. 기본적으로 FC토쿄관련 토픽 중심...(후략)” (B)

“프로듀서(아이돌마스터), 提督(艦隊콜렉션), 馬主(위닝포츠8)의 3가지 겸업으로 분주한 매일” (C)

이와 같은 프로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나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 또는 C의 경우처럼 자주 갖고 노는 게임을 들어 자신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이나 축구관전, 게임과 같은 취미에 관한 트윗을 주로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2011년까지의 투고자의 전반적인 특징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가끔씩(물론 이용자에 따라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진보성향의 신문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고, 불법체류외국인을 비판하거나 한국 및 중국에 불쾌감을 내비치는 블로그 기사를 인용한다거나,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위에서 소개한 A의 경우, ‘스마트폰의 충전기가 형편없다’거나 ‘불 붙은 담배를 자동차 창밖으로 던지는 여자, 최악이다’라는 식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을 주로 투고하다가 다음과 같은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항공자위대 장성출신의 군사평론가·정치가)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었다.

“(平成)27년판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점이 명기되었다. 늘 그렇듯, 한국외교부등이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한이 환영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내라 일본.”(2015년 4월 8일)

또한 C의 경우는, 게임에 관한 트윗의 중간중간에 “중국당국, 장례식에서의 스트립쇼를 금지. 지역주민 ‘스트립퍼를 부르지 않으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온다’고. 스트립쇼를 해서 지켜야 할 체면이란 게 도대체 뭐냐.”(2015년 4월 27일)라는 식의 중국의 ‘풍습’을 비웃는 트윗이나, “민주(당)오카다(대표) ‘모든 사태를 상정한 법률은 일본에는 불필요. 일본은

무방비맨으로 감시다! ... 국회의원으로서는라기보다 인간으로서 이미 잘 못된 거 같다”(2015년 4월 27일) 라는 미일군사협력강화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자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토로하는 트윗을 투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스스로를 평범한 ‘개인’으로 정의하는 한편, 일본인으로서 지닐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사회심리라고 할 수 있는, 애국심이나 내집단의식(内集團意識)을, 자신이 동조할 수 있는 블로그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다른 투고자의 트윗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통해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 이것이 2010년과 2011년의 투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전반적인 특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2012년 이후의 투고자들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을 ‘나이브한 애국적 시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2012년 이후의 투고자들은 ‘결연한 우익지사’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2012년 이후의 투고자들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식화,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트위터를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의 투고자들 가운데 약 20%의 투고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살펴본 결과, 우선 이들은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이념적, 정치적, 국가적인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다. 좀 길어지지만, 몇몇 투고자들의 프로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타이완 감사311(2011년 3.11동일본대진재 때 타이완이 해준 지원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보임). 일본을 除鮮(일본어 발음으로 ‘쵸센’. 방사능오염을 제거한다는 뜻의 ‘除染’(쵸센)에 빗대, 조선인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고 싶소이다. 천황폐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조선

인은 이를 면한다. 일본인의 정당, 자민당의 당원이력 2년, Jnsc회원입니다! 일본을 욕보이는 불손한 센진(鮮人,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호칭), 시나진(支那人,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호칭), 닛교소(日教組, 일본 교직원조합), 프로시민(일반시민을 가장한 정치활동가라는 뜻의 조어) 매우 싫어함...(후략)" (D)

“【취급주의사항】 ①음식과 인간의 편애가 심합니다 ②본래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배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③자위대를 국방군화하기 위해 9조를 포함해 헌법 개정 찬성입니다 ④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가 도쿠아(特亜, '특정아시아'를 줄인 말로, 반일감정이 강한 중국, 한국, 북한을 지칭)를 중심으로 몇 나라 있습니다 ⑤기본적으로 토론에는 응합니다만, 맹렬하게 독을 뿜어대니 각오해주십시오.” (E)

“애국, 우국, 혐한, 혐중 / 국방군의 조기설립을 / 수신(修身, 제2차 세계대전전에 있었던 초등학교의 수업과목으로 연합군사령부가 군국주의교육이라고 판단, 수업을 중지시켰다)의 부활을 / 대동아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닙니다 / 닛교소는 일본을 망하게 합니다 / 빠칭코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주세요 / 천황폐하 만세 / 일본 우습게 보지마! / Japanese Only / …(후략)” (F)

차별적인 호칭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한국이나 중국, 재일코리안에 대한 적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도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자기소개’의 특징적인 일면이다.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성향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데, 프로필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 란에, 욕일기나 일장기의 사진을 내걸거나, 곁들이고, 일본군의 전폭기 사진이나 특공대 조종사들의 단체사진을 타임라인 윗부

분의 배경사진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언어정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징들까지 동원해 스스로의 이념적, 정치적, 국가적 정체성을 ‘장식’하고 ‘과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상징들이 일본사회내에서 지녀온 위화감을 일부러 상기시켜 상대방을 ‘위압’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일 정도이다.

이들이 투고하고 있는 트윗의 전반적인 내용도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트윗의 상당부분이 정치적인 이슈,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재일코리아인과 관련된 것들인데다, 소위 우익인사들이나 우익진영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확산시키는 트위터계정의 리트윗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D의 경우, 본고 집필시점에서는 2013년 1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트윗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트윗이라는 것이 “천황폐하의 산수(傘壽)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메라 미코토 이야사카(皇尊弥栄, 천황이 더욱 더 번창하길 기원하는 말)!”라는 내용이었다. D는 이 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었던 특정비밀보호법을 지지하는 보수정치가들의 트윗을 주로 리트윗하는 한편, 丘田라는 35,000을 넘는 팔로워를 획득하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있는 우익계 트위터계정의 다음과 같은 트윗도 리트윗하고 있었다.

“결국 재일조선인은, 한국보다도 일본이 살기 좋아서 일본에 눌러 앉아 있는 거니까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누가 뭐 조선인의 자유를 빼앗아 일본에 감금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이 싫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면 된다. 신세지고 있으면서 일본을 욕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잠꼬대는 자고나서 해라!”(丘田, 2013년 11월 8일)

E의 경우는 육일기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고, 한국이나 중

국에 관한 뉴스를 인용해 짤막한 코멘트를 다는 형식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집중적으로 투고하고 있었다.

“한국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모양 시장관계자 (기사URL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음) 국민의 살을 깎아서 중앙은행 스스로가 세계 투자자들의 양분이 되어 주는 최고의 나라, 라는 데까지 읽었다. ㅋㅋㅋ”(2015년 4월 29일)

D의 타임라인에서도 2011년까지의 투고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개인의 일상이나 취미와 관련된 트윗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트윗이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거나 ‘구국선열’에 대해 감사하거나, 기미가요를 비롯한 천황 칭송곡의 뮤직비디오, 일본외무성이 작성한 ‘다케시마’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비디오를 소개하는 우익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것들이었다.

결국 2012년 이후 자신의 우익적 입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거 트위터상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더러는 험한적인 내용의 트윗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들은 우익적인 주장들, 에컨대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에의 집착, 천황에 대한 충성,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 야유, 조롱, 재일코리안에 대한 공격을 내용으로 하는 트윗을 집중적으로, 빈번히 투고하고, 우익적인 주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으로 실어 나르면서, 트위터를 유효한 선전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친 지난 5년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일인 6월 22일을 중심으로 1주일 동안 투고된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의 추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투고자들의 ‘트위터상에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단히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은 2012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하나의 이용자 계정이 수 차례에 걸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투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똑같은 내용의 트윗을 집요하게 반복투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 2012년 이후로 일본정부의 입장이나 우익세력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트윗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하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투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트윗을 투고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특징도, 2012년을 경계로 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2011년까지는 애국심이 강한 일반 개인들이 한일기본조약에 관한 트윗을 투고하고 있었던 데 비해, 2012년부터는 ‘우익활동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작심’을 한 듯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트윗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 즉 국가주의적이고 우익적인 성향이 뚜렷한 트윗이 최근 3년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담론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즉 특정사회의 특정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담론이 어느 정도 권장되고, 어느 정도 억제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지각’되고 있는지, 어떠한 담론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지와 비판의 분포는 어느 정도로 ‘지각’되고 있는지의 관점에

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노엘노이만(Noelle-Neumann)에 의해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으로 이론화된 바 있듯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회의 의견풍토(climate of opinion)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지지를 얻기 힘든 의견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침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그 침묵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의견풍토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침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거꾸로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인 지지를 얻기 쉬운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의견표명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이므로, 침묵이 아닌 '발설의 나선'이 구동하기 시작한다.¹⁶⁾

이토 요이치(伊藤陽一)도 '구우키(空気)'라는 개념에 착목해 노엘노이만과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구우키는 어떤 특정한 의견이나, 정책, 또는 결정에 대해 찬동을 요구하는 압력(많은 경우 협박이나 사회적 제재를 동반하는 압력)으로 정의되는 개념인데, 그는 구우키라는 개념이 노엘노이만의 의견풍토라는 개념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인 의견풍토를 판단하는 단서가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론화한 침묵의 나선과는 달리,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이나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찬동에 대한 압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⁷⁾ 그런 점에서는 이토 요이치의 구우키 개념이 본고에서 주목한 트위터상에 있어서의 담론에는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토 요이치는 특히 이러한 구우키가 징고이즘(jingoism), 즉 애국주의적 대외 강경론을 성립시키는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일본사회의 호전적 경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포착하고 있는데, 이 점도 본고의 분석결과와 친화성이 있다고

16) Noelle-Neumann, Elisabeth(1984),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 Our Social Sk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 伊藤陽一, 「意見風土, 「空気」, 民主主義」, 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56(2006), 3-27쪽.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특정 의견에 대한 찬동의 압력'뿐만 아니라, 특정 의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분포 등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보다 적용범위와 설명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담론규범'이라는 개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적확하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2012년의 정권교체,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된 민주당정권의 급속한 기반침하, 아베수상과 그의 이념적 동료들, 또는 보수적인 지지체 수장들에 의해 시도된 '과감한'금기에의 도전, 그리고 재특회와 같은 단체들의 활성화... 이러한 여러 계기들이 일본사회의 '담론지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사히신문의 '실패'로 인한 진보언론의 결정적인 위축과 보수언론의 득세가 그러한 지형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지배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하는 말'을 규정하고 있던 일본사회 내의 담론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본고의 분석에서 드러난 상황들은 이러한 담론규범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인 동시에, 이번에는 다시 상호작용적으로 그러한 담론규범을 '나선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아직까지 언론보도의 담론규범은, 보수진영이 득세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해도, '막나가는' 험한 보도에는 제동이 걸리는 상태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면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일 간의 역사문제 대해 발언하는 것 자체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우익적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은 개인의 사회관계를 파탄시킬 가능성마저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익명적인 공

간에서나 가능했던 발언들이 반 실명적인 공간으로 증폭될 때마다, ‘착한 한국인도 죽여라’는 식의,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내던진 담론에 충격을 받을 때마다, 일본사회의 담론규범은 조금씩 좌표를 옮겨가, 언젠가는 언론이라는 공론장도, 사적인 대화의 영역도, 거리낌 없는 ‘헤이트 스피치’의 장으로 만들어버릴지 모를 일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5년 4월 27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5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6월 3일

참고문헌

- 李光鎬, 「ツイッター(Twitter)上におけるニュースをめぐ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 成城大学社会イノベーション学部, 『社会イノベーション研究』 第9巻 第1号(2014).
- 李光鎬, 「ツイッター上におけるニュースの普及－誰がどのようなニュースをリツイートするのか」, 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65(2015).
- 長谷川典子, 「インターネット掲示板のエスノグラフィー: 日韓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に向けて」, 『多文化関係学』 第1巻(2004).
- 韓英均, 「反韓と反日 -嫌韓流からみえてくるもの-」, 早稲田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科, 『社会学研論集』 16(2010).
- 小山田晋, 「ニュースをめぐるオンライン上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ニュース・バリューに関する分析」, 慶應義塾大学 大学院 社会学研究科修士論文(2014).
- 田辺龍, 「匿名掲示板」と世論形成の磁場」,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8 (2006).
- 北田暁大, 『嗤う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NHK出版, 2005.
- 鈴木謙介, 『暴走する日本のインターネット』, イースト・プレス, 2002.
- 伊藤陽一, 「意見風土」, 「空気」, 民主主義」, 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56(2006).
- Noelle-Neumann, Elisabeth,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Abstract

Who Tweets What about the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A Change of Discourse Norm in Japanese Society

Kwang-Ho Lee

This study analyzed tweets o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posted on the Twitter in Japan in terms of the specific assertions made and characteristics of users who posted them. In Japan, anti-Korea discourses have been continuously produced and distributed mainly on anonymous Internet discussion sites. This study has an interest in examining how ‘Korea’ has been discussed on the Twitter which is considered as a less anonymous media under certain conditions, with a special focus on the possible relations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in Japan resulted from ‘the return of conservative regime.’ Major findings are 1) that a rapid increase of the Treaty related tweets was observed since 2012 when Abe Shinzo’s party started to get wide public supports, 2) that most of the tweets made largely same assertions as the Japanese government and/or right-wing groups have raised, and 3) that majority of the users who posted those tweets identified themselves with nationalists, the right-leaned, or conservativ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hange in discourse norms is currently occurring in Japanese society and the change might be advanced further for right wings to easily voic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Japanese Media, Twitter, Discourse Norm, and Conservative Shift